

신안군, 섬지역 자연경관·환경보전 앞장

지도읍·안좌·암태면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 추진
사후관리 파급효과 분석 전 지역 확대 보급 계획

신안군이 섬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방치 쓰레기 문제 해결과 자원의 절약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지도읍·안좌면·암태면에 ‘재활용 동네마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및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더불어 사후관리 측면에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신안군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유용가능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천사대교 개통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저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후 청소차량 및 암물박스 등 장비 교체와 환경미화요원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위생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지도·중도·도초·장산·암태 등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쓰레기 없는 농촌 환경 개선 및 농의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 영농폐기물 장려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러한 노력들로 2017년 환경부 주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에서 공로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 전남도 주최 ‘제4차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선별 경진대회’에서 3위 입상, 한국환경공단 주관 ‘2018년 농촌 환경정화 우수 지자체 (장려상)’로 선정되는 등 폐기물 수거처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행정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안=양훈기자

강진, 지역사업 국비 확보 총력
이승옥 군수, 국토부 방문 예산 요청

이승옥 강진군수가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군은 28일 “이 군수는 최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강진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 군수는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가우도 관광지에 매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 군수를 비롯한 중앙부처 방문단은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진도군은 최근 예비 귀농·귀촌인 8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예비 귀농인, 농산업 창업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농특산물 가공 현장 견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인기 귀농·귀촌지역 자리매김

현장 견학 등 맞춤형 교육 호평...수도권 참가자 몰려

진도군이 전남도내 인기 귀농·귀촌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도군은 28일 “최근 6박7일 동안 예비 귀농·귀촌인 8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귀농학교인 ‘수도권 예비 귀농인, 농산업 창업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그루터기마루, ㈜한국정책미디어 등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창업 교육은 귀농·귀촌 정책 설명, 마케팅·유통 전략, 현장 체험, 귀농·귀촌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으로 접수 때부터 수도권 지역 도시민들의 신청자가 몰렸다.

특히 진도군의 차별화된 정책인 영농 현장 실습 멘토링제, 창업 지원, 주택 수리비·영농 자재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과 농특산물 가공 현장 견학, 간담회 등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 예비 귀농인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교육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목적을 뒀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영농 정착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한편, 예비 귀농·귀촌인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사례별 창업농 귀농 성공 사례 등의 교육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현재 진도군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정착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도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매년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진도군 귀농·귀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인 4천70명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농촌 유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1년까지 5억여원을 지원 받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에도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여성, 청년 등 분야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진도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민주당·영암군 당정협의회 개최

고천수 군의원, 현안 사업 260억 지원 건의

더불어민주당과 영암군이 지난 2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0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조체계 구축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회장과 전동평 영암군수, 조정기 군의원, 박찬중·고천수·노영미 의원 및 우승희 도의원, 실과소장과 당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영암군은 2020년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 ▲자연친화적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공임대형 귀농창업 시범농장 사업 ▲드론 활용 생산비 절감 비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을 요청했다. /영암=이봉영기자

또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 관련 현안으로 대불친화형산단 특별지원, 소량생산자동차 인증 시행규칙 개정,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사업, 대불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글로벌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심도있게 논의됐다. 특히 삼호읍 고천수 의원은 대불주거단지 고압송전탑 지중화사업(160억원)과 무화과 특구지정과 건조장, 가공시설과 생산기반 조성사업(100억원)과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사업으로 260억원을 요청하는 등 내년도 국비지원을 당과 의회, 집행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영암=이봉영기자



진도경찰, 장애인복지관서 교통사고 예방교육

진도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최근 진도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장·직원·이용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이인회 교통관리계장은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주제로 오토바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탈 때는 안전 장구 필수 착용하기, 무단횡단금지, 야간·새벽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차량 사이로 걷지 않기 등을 교육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관련 퀴즈를 문답식으로 진행해 LED지팡이, 구급함, 안전모, 휴대용 라이트 등 안전 용품을 전달하며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조영일 진도경찰서장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기자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